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800 ©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Ŏ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

“...오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3~9)

흠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방에 ‘흠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흠어진 나그네’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사방으로 흠어진 유랑자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교도들과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속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베드로는 참된 믿음은 놀라운 기쁨을 가져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참된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8절). 여러분은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형성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아람어와 광채가 가득한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3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인하는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이 기쁨은 열심히 일하거나 연구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에 대해 듣고난 뒤, 회개하고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보았고 만났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 때 함께 3년의 세월을 보냈던 제자들마저도 그를 십자가에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만나보고 만져보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요 20:29).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나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났으나,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두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고, 두 귀로 직접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그의 육체를 만짐으로써 벌어지는 이적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산 소망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성정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신약성경입니다. 그 신앙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죄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듭나 산 소망을 갖게 된 축복입니다. 아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과 같은 비천한 죄인들도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이 세상 끝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9절). 아멘. 그 날이 되면 거듭난 모든 이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성이나 철학 또는 전통을 통해서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거듭난 이들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 부활은 산 소망을 줍니다. 모든 것은 녹아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망은 썩어지고 소멸됩니다. 진실로 그것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4절).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음성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녹아질 것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 중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불같은 심판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참 믿음이 더해 주는 것들

참된 믿음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후손이 된 여러분은 악한 것에 의해 흠이 생기지 않으며 시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허려 크게 기뻐하도다”(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복된 지위와 기업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를 갖게 하고,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여러분의 참 믿음이 오늘날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Sermon of pastor Kim



Real Faith Brings Great Joy

*"...and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and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but believe in Him,
you greatly rejoice with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
obtaining as the outcome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1 Peter 1:3-9)*

Peter wrote this letter to the believers who lived as "aliens, scattered" in the provinces of Asia Minor. The term "aliens, scattered" literally means the "exiles of the dispersion". These predominantly Gentile Christians, whose true citizenship was in heaven, were experiencing the suffering and trials that often come to Christians as they live faithfully in a pagan and hostile society. As such, Peter encouraged his readers to rejoice in their faith. In today's passage, he recites the wonderful blessings that come to God's redeemed children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In essence, He highlights the wonderful truth that real faith brings great joy.

In discussing real faith, Peter tells believers, "and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and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but believe in Him, you greatly rejoice with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v. 8). As someone who formally practices their faith, do you have the kind of joy Peter is describing? Is there joy beyond description in your heart? Is there joy full of beauty and brilliance shining through you? Peter praises God by saying,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v. 3). Peter has the kind of joy that comes from the resurrection. This joy cannot come from hard work or study. This great joy comes through faith. Do you have this joy?

Many of Peter's readers never saw or touched Jesus. They only heard the gospel, after which they confessed and believed. When we look at the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we find many people who actually saw and met Jesus. Many of these people benefited from Him; they received healing and heard the gospel of heaven spoken from the lips of the Son of God. What happened next? They crucified Him. They loved Him, and then they killed Him. Even His disciples, who spent three years in His presence, abandoned Him at the cross. Thomas went so far as to doubt Christ's resurrection until He could see and touch Him(Jn. 20:25). When he did meet the Risen Lord, he said, "My Lord and my God!" Jesus responded, "Because you have seen Me, have you believed? Blessed are they who did not see, and yet believed"(Jn. 20:29). Thomas didn't believe Jesus before His crucifixion, when He told him that he would rise in three days. He believed everything but His word. How about you? You don't get to see Jesus, you don't get to hear from Him directly, and you don't get the advantage of miracles from His physical touch. Do you still believe in Him?

Faith comes through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The whole Bible tells the story of Jesus, but it's the New Testament that bears witness to Christ's resurrection. The book of Acts, which doesn't center on Christ's resurrection but instead focuses on the sinner, shows us how those who meet the resurrected Jesus through faith receive the same blessings as Jesus received. What blessing is that? It is the blessing of "being born again to a living hope". Ame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causes us, poor sinners, to be born again, just like Jesus.

At the end of the earth, God will show us the salvation that comes through faith by Jesu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btaining as the outcome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v. 9). Amen. All those who are born again will receive eternal life. How is that they get eternal life? Those who have faith, not a religion, philosophy, or tradition, but who really believe in the resurrected Jesus will be born again. The resurrection is the beginning for all born again humans. This resurrection gives living hope. All humans have some kind of hope, dream, vision, or purpose. Every hope that comes from a person not born again, is a decaying and dying hope. It is a deadly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believers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v. 4). If you are born again, you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v. 5). My friends, the proof of your faith, "being more precious than gold which is perishable, even though tested by fire, may be found to result in praise and glory and honor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v. 7). The result of your faith 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will bring salvation to your soul. All earthly things will disappear when you go before the Judge. Everything will melt but your faith. The only thing that will matter is your faith. Can your faith withstand the test of fire?

Real faith is important. As a descendant of the faith from Abraham, you inherit eternal blessings unstained by evil and unimpaired by time. You are protected by God's power through faith, "In this you greatly rejoice, even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if necessary, you have been distressed by various trials"(v. 6). My dear friend, knowledge of your secure position and inheritance brings rejoicing, the proof of the reality of your faith, increasing love for Jesus, and assurance of the completion of your salvation. I pray that your real faith brings great joy to you today and forever. Amen. 卐

때가 찬 경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8-10)

정현민 목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에게 죄 사함이라는 복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목하셔야 할 한 단어는 9절의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비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된 후에도 여전히 비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은 오만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진 사건이었는 말씀입니까? 누가는 그것이 아님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눅 24장에서 글로바와 주님의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 가시면서 몰랐습니다. “니가봐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글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하면서 근일 거기사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눅 24:13-18)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행 26:26절에서 베스도에게 변론할 때에 “향개서는 이 일을 아시므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님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멸망일 유월절에 그 것도 유대인들의 소수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우경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행 2:5).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들린 뱀과 같이(민 21:9; 요 3:14),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본 고로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요 3:15-16)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믿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커녕, 단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믿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9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 오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림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며 성도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천상의 모든 성도들도 찬양 만물이 찬양할 제목입니다. 이 은혜의 찬양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한 가지 더 특별히 할 내용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총명이 의지적인 결단, 혹은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 자신에게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심으로 이미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게 하시니 해와 달과 오로라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의 신을 그들에게 존찬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공한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을 만드도록 하셨습니다(창 31:2-6).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게 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채우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성경과 기독교를 하나님께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만 학문적으로(고전2:1, 4:6) 이해하고 있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학문적인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 오신 비밀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7-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학문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었으며 그 세대의 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초대교회에 믿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지혜있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많았습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가리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행 4:13)고 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산헤드린 공회와 회원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의 질문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를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섭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오셨던 비밀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때가 찬 하나님의 구속철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예언해 오셨습니다(히 1:1).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0절).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에덴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단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수종돌고 있었습니까(마 1:13). 들짐승은 맹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맹수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까. 맹수에게서 포악성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돌고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이는 메시아 시대 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사 35:9; 61:3).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고 난 후의 아담과 하와와 모삭과 같이 죄악에 갇혀 여전히 영성취가 없고, 가시가 있어서 찰리고, 고통받으며, 한숨이 깊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아픔이 있는 현상에 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찬양과 기쁨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만약에 전자가 더 가깝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고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며 십자가를 붙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화해하시고, 광야를 에덴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시고 홀로 언덕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용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러분들의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초창에 응답하시어 영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2교구 5지역	이상해	네팔	5월 5일(월)~5월 17일(토)
1교구 8지역	이부성	몰도바	5월 7일(수)~5월 17일(토)
4교구 3지역	신광철	스리랑카	5월 7일(수)~5월 17일(토)
14교구 4지역	김동욱	몽골	5월 9일(금)~5월 19일(월)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1교구 2지역	장철환	인도	4월 28일(월)~5월 8일(목)
12교구 5지역	정원근	카자흐스탄	4월 29일(화)~5월 9일(금)
17교구 13지역	진학래	몽골	4월 28일(월)~5월 9일(금)
6교구 1지역	이실호	인도	5월 1일(목)~5월 9일(금)
7교구 6지역	송두섭	방글라데시	5월 1일(목)~5월 8일(목)
7교구 7지역	이인광	불가리아	5월 1일(목)~5월 10일(토)
12교구 1지역	강태영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12교구 3지역	함철주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7교구 15지역	유상태	몽골	4월 21일(월)~5월 2일(금)
5교구 3지역	안석현	스리랑카	4월 21일(월)~5월 1일(목)

▶ 젊은,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⑦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려와 주님의 역사화신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 2년 때부터이다. 외선부 방글라데시팀에 봉사하는 선배의 권유로 외선부 일을 돕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방글라데시로 첫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 후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또 다시 방글라데시에 다녀왔고 작년에는 탄자니아에, 그리고 지난 12월 28일부터 9박10일간을 대학부내 예배 봉사자들과 한 팀을 구성하여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우리들은 대학부 예배를 오랫동안 같이 인도해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친분 관계는 좋았지만, 사역준비를 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만큼 어둠의 세력의 방해가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기간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처서인지 오히려 사역지에서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갔다. 사역하는 동안, 기도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전했다. 그러자 많지는 않지만 깊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생겼고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선교는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소중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다. 우리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역기간을 더 늘렸으면 한다. 또 우리 교회가 동남아지역에 집중적으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좀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경진 (대학부)

(선전주 기자)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②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밑에 위치한 무수리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전도지 외 천 부를 준비하여 노방전도와 일대일 전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몽골에 갔을 때, 땅은 너무 넓고 사람은 적어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인민 밀도가 높은 인도를 가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별로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꾸준히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니 팀웍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팀이 하나되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 팀원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기간 중 주일이 두 번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긴장됩니다. 인도 무수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하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무수리(5월 1일~5월 12일)

1. 인도는 기독교인 1%도 안됩니다. 인도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2. 주 안에서 팀원들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3.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현금으로 마련된 사역비를 헛되이 쓰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김철주
12교구 3지역장

(엄정식 기자)

CMTC 집중훈련

본 교회에서 실시 중인 CMTC훈련에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 CMTC 집중 훈련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8일(목) 09:00~18:00

장소: 제2교육관 4층

대상: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 있는 전 교인

회비: 학생 5,000원, 일반 10,000원

	시간	교육과목
1강	09:00-09:50	영성훈련(1)
2강	10:00-10:50	교회 선교 정책
3강	11:00-11:50	선교역사(1)
	12:00-13:00	중식
4강	13:00-13:50	선교역사(2) 정, 가, 불, 회, 힌
5강	14:00-14:50	전도실제
6강	15:00-15:50	팀 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7강	16:00-16:50	단기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8강	17:00-17:50	영성훈련(2)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던 내가

최 지인 (고등부)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가장 신나게 느꼈던 것은 각 학교별 전도 모임(들로스)이었다. 입학 후 앞두고 있던 나는 '우리 학교 전해도 있을까? 입학하면 나도 그 전도와 함께 전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막 입학했을 때에는 우리 학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2학년 때, '들로스 천부장'으로 임명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으며 1학년 때 실행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회에서의 들로스 모임은 1월부터 가졌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모임을 갖고 전도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다. 주님의 명령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시기를 거치며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었다. 초창기 모임을 가질 때만 해도 이 모임을 '내가 끝나갈 수 있을까'나 '자신을 많이 의심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릴 때 가능한 일이었다. 내 자존심과 자아를 주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자, 모임의 인원수는 한 명, 두 명씩 늘기 시작했다. 전학 와서 방황하던 친구를 복음으로 권면하고 들로스 모임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었다.

솔직히 1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들로스 천부장 일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현재 모임을 갖는 친구들과 서로의 믿음에 대해 나눌 때마다 늘 감사함을 느끼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들로스는 헬라이로 '꿈'을 뜻한다. '꿈'이란 무엇인가? 주인 아래 속해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다. 들로스 모임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한다. 고등부 소속된 각 학교의 모든 들로스 모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들로스 단원 모두가 기쁨으로 확신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

이 해 원 (고등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이 봄에, 나는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봄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제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하여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참되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삶도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는 시간에 들로스 모임을 갖는데, 친한 친구들을 모두 데려갈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들로스 모임 인원수는 점점 늘어났고 지금은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식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나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고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심이 없고 기쁨이 쌓여 항상 웃는 얼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학생 인터뷰 7

제가 생각하는 천국일꾼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구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고등부 학생회에서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임된 일을 하는 행위라 아니라 그 일들을 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나를 내세우며 늘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 천국지기를 할 때 나를 세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를 세우려는 경향이 강해 이것조차 종종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며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이고 돌이키는 자녀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무작정 어리석은 선지자일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시지 않고 변화시키실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투덜댔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며 간구해야겠습니다.



김소영 (고등부)

토기장이와 토기

성경과 인권(人權)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

이 말씀은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까지 감동받은 말씀이다. 한 스님은 '이 말씀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방상에 나와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스님이나 목사님의 해석처럼 예수님께서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0:25)하고 물었던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대답한 말이다. 즉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율법사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노숙자들에게 라면 끓여주는 것으로 얻는가? 스님이 이해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얻는가? 아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을 구제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율법을 제시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사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방상에 나와 "자신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소말리는 자들과 함께 사는데, 어려워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 중 종교가 있는 자들에게도 종교를 권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므로 종교가 없는 자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한탄하실 말인가? 이 기독교 지도자나 본문의 율법사는 인권을 '배물리키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권을 위한 이러한 행위는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실천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라. 그 율법사가 볼 때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선한 행위를 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권리는 '배물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리다. 죄와 사망이 그 권리를 끊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럽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 인간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인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라면을 주기에 앞서 복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전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회복이다. 영적인 눈을 뜨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영생을 알라. 죄와 사망의 범로부터 인권을 회복시키라. (원집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저를, 제 마음대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410장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 수 없도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5살 때부터 동생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학장 시절 내내 하나님 찾기를 힘써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약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해 억울함과 좌절감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권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저는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회개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늘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바이올린을 켵니다. 특히 시편 23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졌었지만 아이들은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앙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김영정 집사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임혜원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최순복' 성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가정주부이며 개복통에 살고 있습니다. 충현 교회에는 92년도에 나와 3년쯤 다니다가 점차 교회와 멀어져 신앙생활을 곧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아, 교회에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만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8년 전 교회에 다닐 때에는 배는 한 시간이 걸리고 주무게가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 얻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에 남는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한준석 통신원)

마틴 루터의 종의 십자가



3. 영원 전부터 세워진 구원 계획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라고 말하고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옹호하는 사람이며, 거기에서 깊고도 광대한 진리를 발견하였기에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다. 즉,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 6:14)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옹호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그 '깊고도 광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인간들의 우연적인 소행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정해진 계획에 따른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줄기차게 예언했으며(사 53장, 시 22장 등),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 번 분명하게 예고하셨다(요 3:14, 요 12:32, 눅 12:50). 그리고 사도들 역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작정에 따른 일임을 명확하게 선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었으니" (행 2:23). 성경의 이 모든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미리 세워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의 놀라운 은인의 타락과 비참함을 속고해 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인간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등 모순되고 불합리한 존재이다. 또한 그 결과 이 세상은 율리적이며 도덕적인 온갖 난제로 가득 차 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이런 현실을 고쳐보려는 처절한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으나 도리어 인류는 더욱 더 악랄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인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영원한 사망뿐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런 비참함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우리의 구원과 구속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한 가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친히 세우셨고 때가 되며 그 계획을 인류의 역사 속에 친히 실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영원 전 구원 계획으로 이끌어 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며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고전 1:23, 24).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당신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진심으로 자랑하는가? 이 '깊고도 광대한 진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지 바라보도록 하자. (편집)

다음 주일 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의 찬송시는 1862년 실바너스 드라이트 펠프스(S. D. Phelps, 1816~1895) 박사가 실성함에서의 헌신을 읊은 것이며, 곡은 미국 침례교회 목사요 대학 교수인 작곡가 로우리 박사가 만들었다. 작곡가 로우리 박사는 전문 음악인은 아니었지만 찬송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40대 이후에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

이 찬송은 로버트 로우리(R. Lowry)와 윌리엄 돈(W. H. Doane)이 공편한 주일학교 찬송가집 '순금(Pure Gold)'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절: 성자의 귀한 몸 위하여 버린신 그 사랑과 피로써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니
2절: 저로써 위해 간구하시니 이 모든 은물이 아름다운 주의 향기로운 몸과 귀한 몸과
3절: 우리의 생애가 인도 지니 신성한 믿음과 믿음으로 행한 사랑과 정한 사랑을 주게나 불로써 화해하시니
4절: 만가지를 버렸으니 내 생애를 위하여 주께 헌신하노라 주께 헌신하노라 주께 헌신하노라

음표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88	송영애	1 장년부	김규옥(6)	505	유재진	13 장년부	이경순(13)	521	박재민	19 청년부	노종현(6)
489	권병관	1 장년부	김영숙(3)	506	이호진	13 소장부	전경원(13)	522	박종현	19 청년부	박진아(1)
490	박순진	1 소장부	김영숙(11)	507	권진원	19 제2차부	박정희(6)	523	김진희	19 대부부	이영희(1)
491	박진태	2 장년부	임재복(13)	508	문명숙	19 제2차부	유재민(4)	524	이준호	19 대부부	김동훈(1)
492	하우중	2 사방부	장병우(92)	509	허희은	15 장년부	김영진(2)	525	이도연	19 대부부	신명화(6)
493	이교식	5 장년부	문순옥(12)	510	전화영	17 장년부	송숙희(12)	526	이영진	19 대부부	장영구(1)
494	김희연	5 장년부	이성훈(4)	511	조희정	18 장년부	김정희(11)	527	안재석	19 대부부	박순옥(8)
495	김명희	6 장년부	이성훈(4)	512	한종민	19 장년부	서귀순(8)	528	권영환	19 고등부	이종화(4)
496	박은희	6 장년부	황정미(7)	513	김성진	19 장년부	서귀순(8)	529	이희정	19 고등부	이근호(14)
497	조규철	6 장년부	김순영(6)	514	나연	19 장년부	박광희(6)	530	조지훈	19 고등부	이옥희(6)
498	박우홍	7 장년부	박찬숙(12)	515	박우영	19 장년부	유용석(4)	532	장정현	19 고등부	장영구(1)
499	한미진	7 사방부		516	황재현	19 장년부	김소연(11)	533	김예지	19 고등부	김숙옥(5)
500	한승헌	9 장년부	오명훈(10)	517	유원정	19 장년부	강옥련(11)	534	임성준	19 예배당부	권철(9)
502	신준하	11 장년부	이금순(12)	518	박희희	19 장년부	김재순(14)	535	가나	19 회신부	최명호(7)
503	김명숙	12 장년부	최경진(12)	519	김종석	19 장년부	김경현(4)	536	마리아	19 회신부	이정희(7)
504	양규순	12 장년부	이경희(3)	520	노승진	19 장년부	강종(4)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만세

이성길 (유년부 4과1반)

이종재 (소년부)



나는 이번 40회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가지를 깨달았다. 사실 난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의심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학교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리였던 마태가 쓴 마태복음 26장, 27장을 바탕으로 장준 목사님의 설교와 분반공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가롯 유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 마음도 모른 채 그냥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계속 깨우셨지만 결국 계속 자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는 결국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보면 나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었던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나는 5살 때 유아부 찬양대에 처음 섰다. 운 적도 많고 예배 도중 잔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금도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연습할 땐 지겹기도 하고, 힘들어서 서기 싫을 때도 있지만, 찬양을 하고 난 후엔 마음이 가벼워진다.

난 밤에 잘 때 종종 혼자 자는 것이 좀 무서워서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잠이 든다. 정말 찬양은 나에게서 무서움을 없애주는 좋은 찬사이다. 또, 그저 부르면 될 줄 알았는데, 박자·리듬·음정도 가르쳐 주는 음악책이다. 이 모든 것이 어울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인다.

큰일을 하며 감사와 기쁨이 더해진다. 예배할 때 찬양하는 친구들의 얼굴 모습이 즐겁고 환해지는 것을 느낀다. 꼭 해낼 것이다.

정말 찬양은 나에게 기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찬양은 내 가족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거다.

믿음의 학교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요한의 아들 시몬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까”(요 21:5a,17절)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에 빠집니다.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었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 그런 베드로가 언약하여 세 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전처럼 자신있게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낙약함을 채웠했기에, 더 이상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겠지요. 실패는 우리를 철들게 하진 않나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며”(17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거짓이나, 자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실망에 빠져, 확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약해서 넘어져 죄를 짓고 살지만, 뻔뻔스럽고 죄송하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장담하고 싶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역을 맡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알고, 능력 있고, 죄를 덜 짓는 깨끗한 사람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들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 양을 사랑 할 수가 없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억지로가 아닌 성령의 감화로 자발적인 결단을 합니다(18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도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요 13:36)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복종하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형일 기자)

진리의 생음

갈라디아서(Galat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율법과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의무와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것이며, 그 자유를 어떻게 사후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따르는 것은 자유자에게서 다시금 종이 되는 일이며(24), 율법을 따르는 자는 연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다니는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4:22,23,26,30,31).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도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면서(5:1),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므로 자유를 어떻게 사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5:13).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자유’라는 것을 권면하고 나오면, 믿음을 통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자가 되는 일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가 되기 이전의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던 종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원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과 믿음의 삶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갈 2:20).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쁨’(육체의 소욕이나 육체의 일에)을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런데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 못박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싸움에서 변변히 실패하고, 죄의 포로처럼 죄의 권세에 끌려 다니는 신자들에게 죄악으로부터의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김영하 목사(한국침례신학대)

